

지역현안 아특법·한전공대법 2월 임시국회 처리 되나

민주당 처리 법안에 포함됐지만 한전공대법은 상임위도 못 넘어 국민의힘 반대로 통과 불투명

광주·전남지역 현안 법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내달 1일 임시국회 개회식에 이어 2~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은 2월 4일과 5일, 8일에 실시된다. 4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5일은 경제, 8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가 대상이다.

현재 아특법과 한전공대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처리예정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한전공대 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해 이번 임시회 처리도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 기간에 아특법 등 103개의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영업제한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 그리고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3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K뉴딜법안 26건, 규제혁신법안 6건, 전기국회 미처리 법안, 가짜뉴스와 부동산 관련 법안들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에 포함했다.

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유효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로 5년 연장하

고, 아시아문화전당과 위탁운영 주체인 아시아문화원을 일원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법인으로 돼 있는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해 국가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한 뒤 문체부 직속기관으로 하고, 현재 문화원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전공대법안은 공공기관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근거와 2022년까지 순조롭게 개교가 이루어지기 위한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특법 처리가 늦어지면, 정부는 현행법에 의거해 '전부 위탁' 형태로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행법상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까지 하되, 그 이후 정부는 문화전당의 성과평가를 한 후 전부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아시아문화전당은 법안이 발의 묶이면서 일반사업비 등의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반사업비 등 전부위탁 후 집행할 예산을 사전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당 내 일부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도 곤란해지고, 보조금 예산 집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히 법률안 마련이 늦어지면 2021년 아시아문화전당 예산 679억원 중 사업기간 부족으로 일부 예산이 불용처리될 우려도 낳고 있다.

또 한전공대 법안이 늦어지면서 한전공대의 원활한 개교 준비에도 차질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한전공대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은 "늦어도 5월 이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한전공대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목동의 한국예술인센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총리 '존재감 약하다' 지적에 "자기정치 소홀한 탓"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대권 도전 "지금 맡은 일이 우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치를 오래 했는데, 맡은 일에는 매우 충실하지만 자기 정치를 하는 데 조금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치 경력에 비해 대권후보로서 존재감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총리는 "정치인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자기 정치도 잘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부족해 손해

를 본다던 의견 어쩔 수 없다"며 "자기 정치보다 책무 감당에 최선을 다하는 제 태도로 제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대권 도전 의사를 묻자 "지금 제가 맡은 일이 매우 막중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 총리는 매우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 건의해 받아들여진 국정 현안으로 '부동산 공급 확대 및 그린벨트 해제'를 꼽으면서 "대통령이 경청을 잘해주고 건강한 건의에 수용성 높은 입장을 보여줘 항상 감사하다"고 했다. 월성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치적 고려가 있어선 안 되며 국민에게 수임받은 역할에 집

중해야 한다"고 했다.

SK와 LG가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특허 소송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소송비용만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데,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라며 "정말 부끄럽다"고 해결을 촉구했다.

언론과 관련해선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데 정치권이 나서서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국민 참여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입기자단 운영 관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부자연스러운 관행이 있다면 타파하는 게 옳다"면서 총리실부터 모든 매체에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연합뉴스

민주 32%·국민의힘 28%...서울 지지율 뒤집혔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문 대통령 지지율 40%대 유지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에서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힘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연속 40%대를 기록하며 반등세를 이어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5~27일 전국 18세 이상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5.8%포인트 크게 오른 32.4%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6.6%포인트 급락한 28.5%였다. 민주당이 서울에서 국민의힘을 제친 것은 지난해 12월 3주차 이후 6주 만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는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6.5%포인트 오른 36.4%를, 민주당은 1.0%포인트 하락한 33.5%를 나타내 다시 뒤집혔다.

전국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33.3%, 국민의힘이 30.5%였다. 지난주에 비해 각각 0.5%포인트, 1.9%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은 서울(5.2%p ↑), 20대(7.1%p ↑), 진

보층(5.0%p ↑)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국민의힘은 부울경(7.7%p ↑), 60대(5.8%p ↑), 중도층(5.3%p ↑), 자영업(7.6%p ↑)에서 상승했다. 이외에는 국민의당 8.8%, 열린민주당 7.3%, 정의당 4.1%였다.

리얼미터는 "이번 조사에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논의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서울시장 공식 출마 선언,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논의 등의 이슈가 반영됐다"며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각 당내 결집력이 높아지며 중도층 역시 각 정당으로 지지세가 흘러가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0.2%포인트 오른 43.2%로 집계됐다. 지난해 5%포인트 넘게 올라 40%대를 회복한 뒤 흐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정평가는 0.8%포인트 하락한 52.4%였다. 모름·무응답은 4.5%다.

긍정평가는 서울(6.8%p ↑), TK(5.7%p ↑), 20대(9.0%p ↑), 진보층(5.4%p ↑)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 긍·부정평가의 격차는 9.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이재명 오늘 광주 방문...호남에 무슨 메시지 내놓을까

AI 헬스케어 플랫폼 결성식 참석

경기도 10만원 지원금 내달부터 지급

이재명 경기지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다.

광주시에 경기도·부산시와 함께 초광역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인공지능(AI)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결성식 참석을 위한 광주 방문이다.

이 지사가 여권의 유력한 대권 잠룡인데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1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이번 광주 방문을 통해 호남 민심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주목된다.

광주시는 29일 오후 2시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성공 추진을 위한 'AI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결성식을 연다.

광주시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은 AI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간 협력 결성식이다.



사업 주관을 맡은 광주시가 데이터거점 구실을 하며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경기도와 부산시가 각각 연구개발, 실증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참여하는 형식이다. 2025년까지 국비 1800억원을 투입해 관련 산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구 개발 및 실증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게 최종 목표다.

이재명 지사의 이번 광주 방문은 지난해 10월 이 용섭 광주시장이 '인공지능 업무협약'을 맺기 위해 경기도청을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자, 사업 참여 기관 대표 자격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부산시 일자리경제실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참석한다.

이 지사는 공식 행사를 마치고 다음 날까지 광주에 머무르며 비공식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국립5·18민주묘지 방문, 윤상원 열사 생가 방문 등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19 확산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일정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 지사는 다음달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우선 지급하고, 오프라인(현장) 지급은 3월 이후로 미루는 등 지급 시기를 분산했다.

이 지사는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은 이달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1399만명이며,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 외국인·국적동포) 58만명도 포함된다. /최원일 기자 cki@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18주년!!

2021년 신축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